

무안군은 전남의 도청 소재지이자 플랫폼 도시로서 도시적 성장과 더불어, 지역 고유의 생태·문화 자산을 글로벌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전략적 전환에 나서고 있다. 국내 최초의 습지보호지역이자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된 무안갯벌과 서남권 고대 역사 중심인 마한부터 전해져 내려온 문화유산은 무안이 지닌 독보적인 경쟁력이다.

군은 이러한 자산을 단순한 보존의 대상이 아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국가지정문화유산 승격을 통해 찾고자 하는 무안을 완성하는 핵심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세계적인 생태·문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무안탄도만갯벌전경

#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문화의 보고' 무안, 글로벌 브랜드 가치 선점한다

◆ 2025년의 결실... 세계를 향한 현지 실사와 가치 입증

2025년 한 해 동안 무안군은 생태와 역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무안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세계보전연맹(IUCN) 전문가들의 현지 실사를 마쳤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로 국가해

태 무안갯벌탐방다리를 신규 개통하며 갯벌 중심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함과 동시에, 무안황토갯벌축제를 생태 체험형 축제로 테마 전환을 시도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졌다. 해제면 봉대산성 발굴조사 과정에서 전남지역에서 최초로 발굴된 후백제 시대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인장 '현산호력인(賢山虎力印)'은 봉대산성

적으로 주목받은 이곳에서 보존 상태가 양호한 인골 2구와 치아 4점이 출토되며 고대인의 형질과 인류학적 특성을 규명할 핵심 자료로 여겨진다. 이는 국내 마한유적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이와 더불어 마한의 발전과 백제로의 편입 과정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학술 가치를 인정받았다.

주민들의 인식 변화 역시 주목할 만한 결실로 무안군은 2025년 주민 대상 마한사 강연회를 통해 마한 역사가 지역의 자부심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유적이 밀집한 몽탄면과 청계면 주민들은 선진지 견학과 발굴 현장 공유를 통해 유적을 미래의 자산으로 재인식했다.

또한, 문화 행정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가칭)무안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분산된 문화 자원을 통합 관리할 조직 기반 마련에 들어갔다.

세계적으로 체감될 것으로 보인다. 일상 가까이에서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를 누리고, 자연과 역사를 교육과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환경은 문화 복지의 저변을 넓히는 토대가 된다. 동시에 생태·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한 체류형 관광과 국제 교류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무안군은 이제 태고의 생태와 유구한 역사를 미래 세대의 자산으로 잇는 길 위에서 있다. 세계가 공감하는 가치 위에 지역의 정체성을 단단히 세운 무안은, 보존과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고 있다.



무안신학동 고분군 출토유물

## 무안갯벌과 마한 유산, 세계가 주목하는 지역 자산으로 부상

### 발굴 성과와 주민 인식 변화... 역사적 가치 재발견

### 생태 관광과 문화 플랫폼 구축... '찾아가고 싶은 무안' 비전

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되며, 무안갯벌은 그 생태적 가치를 국가에 공인받음과 동시에, 글로벌 생태 보고로 자리잡을 당위성을 확보했다.

이미 무안황토갯벌랜드 조성사업 운영으로 무안갯벌의 고유 특성을 활용해 갯벌의 생태를 알리는 데 힘써 온 무안군은, 지난

이 과거 지역의 행정·군사 기능을 수행했던 핵심 거점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마한 문화유산 또한, 2025년 학산리 신학동고분군 발굴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마한에서 백제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유

◆ 세계유산이 일상이 되는 도시, 문화 플랫폼 무안의 완성

무안군이 추진하는 생태·문화 대전환은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현재와 미래의 성장 자산으로 확장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안갯벌과 마한 유적, 봉대산성으로 이어지는 생태·역사 자산은 세계유산 등재와 국가지정문화유산 승격을 통해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하며, 무안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도시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는 무안의 자연과 역사가 국제 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갯벌생태관광과 국가해양생태공원, 문화재단 설립이 더해지면서 무안은 생태 보전과 문화 향유, 교육과 체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문화 플랫폼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군민의 삶 속에서도 구



무안봉대산성발굴조사현장전경



무안봉대산성발굴조사현장보고회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I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북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안중 등 인실 학세권	채원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키프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영 운임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세영 GS건설 | (주)한화/건설 | HDC 엔터ainment